

가오싱젠의 『영혼의 산』(원제: 『靈山』)을 읽고

루쉰과 가오싱젠의 문학에서 본 중국의 지성: 민족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진전*

고 성 빈 | 제주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 초고를 읽고 비평해준 전성홍 교수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144 _ 고성빈

2000년도 중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영혼의 산』을 읽고 중국의 지적 세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사색할 기회를 가져 보았다. 본 서평은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21세기로 가는 중국 지성의 문을 열어 제친 작가 가오싱젠(高行健)과 20세기 초반 중국의 시대정신—救國과 啟蒙—을 대표했던 작가인 루쉰(魯迅)의 문학세계를 지성사의 관점에서 비교·음미해 본 것이다.

중국지성사에 있어서 양자의 비교는 다음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루쉰은 중국근대사상 가장 뛰어난 작가이자 지식인으로 평가되며 20세기 초반 중국의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사회혁명의 시대정신을 투영하는 작품을 썼고 그 시대적 아픔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사상과 작품은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루쉰은 자신의 언어와 조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들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배경인 당당한 국가와 사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의 소리는 중국이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한 고뇌를 안고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시대의 어려움을 고민할 정도로 민족주의적이었지만 작가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정치에의 종속을 거부한 자유주의자이며 보편 주의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오싱젠과 다른 면은 루쉰이 살던 시대적 상황은 루쉰으로 하여금 자유주의와 보편주의정신만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조국의 현실이 절박하였다는 데 있다. 그의 고독하고 치열했던 삶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정신적 고민과 갈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적어도 가오싱젠은 루쉰보다는 한 가지 고민을 덜었다. 즉 중국의 주권은 갖추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쉰과 비교해서는 민족주의적 구국의 열망이 그의 작품의 주된 분위기는 아니다.

21세기를 맞으며 중국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다. 즉 반봉건, 반제국주의 국가건설의 가치였던 사회주의 이념의 쇠퇴와 자유주의사조의 유입, 개혁 개방의 성공으로 인한 경제대국으로의 등장이다.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국가는 스스로 존재하며 일방적으로 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지식인의 지적인 탐

1. 가오싱젠, 이상해 (역), 『영혼의 산』(서울: 현대문학박스, 2001). 이하 작품 인용 시 문장 중간에 괄호 안에 장과 쪽수를 표시함.

구도 투권의 시대와는 달리 국가주권의 회복을 위한 개인의 역할과 희생보다도 독재적인 국가주도의 물질적 번영 안에서 자기상실을 겪고 있는 개인의 존재의미를 탐구하는 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이때에 이르러 단지 중국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가오싱젠의 작품은 이러한 중국의 개방이후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두 작가는 중국지성사의 전개에 있어서 각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큰 성을 쌓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가오싱젠은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배척을 받았다. 그의 실험극 『정거장』이 공연 금지가 되었고 평론인 『소설관과 소설기교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장편소설 『영혼의 산』은 그의 작품이 금지가 되고 비판 받고 있었던 무렵 1982년과 1984년 사이에 양쯔강 유역을 여행하며 구상되었다. 그러던 중간에 외국여행 도중 저자는 1988년 프랑스로 망명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의 작품도 1989년 파리에서 탈고되어 중국어본으로 1990년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조국에서의 정치적 박해와 망명은 그의 문학세계의 인식을 제한하는 아무런 장애와 울타리를 생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는 이 소설에서 “독재치하의 조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정치적 원망과 향기의 의식을 초월하였다. 독자들은 그의 작품에서 “정치나 기타 세속적인 것을 초탈한 순수한 인간영혼의 원류(原流)를 찾아 헤매는 여행기”를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영혼의 산』 - 인간 영혼의 원류를 찾아가는 기행문

그 동안 중국문학은 세계시민주의, 인도주의, 보편주의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중국적인 혹은 아시아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편견은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 혹은 서구 중심주의 — 적인 인식론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Said, 1979). 즉 아직도 세계인들 특히 서구인들은 중국문학을 단지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중국적인 가치와 미적 감각에 더 치중하는 특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주변부의 문학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오싱젠의 『영혼의 산』은 중국문학에 대한 이러한 타성적인 인식을 무력화시키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노벨상 수상이 공산당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한 주변부의 작가가 세계문학의 중심에 진입하는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스웨덴 한림원은 “그의 문학이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신랄한 통찰, 참신한 언어로 중국 소설과 희곡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 대중의 역사(집단주의)에서 개인(자유주의)을 지키려는 투쟁을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노벨상 수여의 이유를 밝혔다.²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문화대혁명”(1966-1976)과 “천안문사건”(1989) 등 중국 현대사의 굴곡을 헤쳐 오면서 소설과 희곡을 통해 일관되게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을 추구하며 사회주의의 획일성과 표준적 사고에 도전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그의 문학의식은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문예관과 당연히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영혼의 산』은 상당히 독창적이고 흥미롭다.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당신’이라는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서술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상상속의 ‘나’로서 끊임없이 독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작품속의 ‘나’는 저자 자신임을 추측케 하는 대목도 있어서 작가의 자전적인 상상의 여행기임을 독자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묘사가 아닌 상념, 혹은 자의식의 기행문이며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이야기의 전개 때문에 독자들은 시각적으로는 바로 눈앞에 장엄한 산을 바라보고 청각적으로는 悠長(유정)한 서사시의 낭독을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장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지루한 느낌을 별로 받지 않았다.

작가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은 곧 인간의 순수한 영혼이며 또한 그것이 곧 진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자

2.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nobel/list/K01p0000.html> 검색일 2005년 2월 16일. 괄호 안은 필자가 첨가한 것임.

연과 진리의 합일을 그리워하며 상님의 여행을 떠나고 있다.

나는 진작 내가 몸담고 있던 오염된 환경을 떠나 진정한 삶을 찾아 자연으로 되돌아갔어야 했다(1권, 2장: 21쪽). (...) 담긴설로 양쯔강 유역의 생태학적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 (...) 인간이 이렇게 계속 자연을 훼손한다면 언젠가는 자연이 무서운 복수를 하리라는 걸 명심해야 돼!(1권, 8장: 66-67쪽).

그러나 여기에서 자연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자연이 아닌 보편적 자연이요, 인간영혼의 순진무구함과 소박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을 훼손했을 때 — 세속적인 것들이 인간의 순수성을 배신했을 때 — 결국에는 자연의 소리 없는 거대한 힘이 큰 징벌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 이는 세속과 인위적인 것을 배척하고 영혼의 순수성을 잃고 싶지 않다는 작가의 인간존중의 보편주의적인 철학을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스러움의 추구가 곧 진리와 일맥상통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순수하지 못했으며 그럼으로써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잘못된 바로 삶에서 멀어지고 삶의 진리에 역행하는 데에 있었다. 삶의 진리는 의적 이미지와는 다르다. 삶의 진리 다시 말해 삶의 본성은 다름 아닌 바로 있는 그대로의 것이어야만 한다. 내가 이러한 진리에서 멀어진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삶의 현상들만을 보았기 때문이다(1권, 2장: 22쪽).

소설의 중간 중간에 작가는 중국의 역사, 신화, 전설, 샤머니즘, 이민족, 도교, 불교, 유교, 서구적인 사상들을 총 망라하여 인용하고 있다. 도교사상에서의 신선(1권, 14장: 109쪽)과 불교에서의 해탈을 이야기하는가 하면(1권, 26장: 197쪽) 어느 순간 기독교적인 사랑을 읊조리기도 한다(1권, 32장: 235쪽). 작품에서의 ‘나’는 신유교 경전인 『周易』(주역)을 읽는다(1권, 12

장: 93-94쪽). 『주역』은 우주만물의 흥망성쇠의 근본원리를 탐구하는 중국 형이상학의 최고의 경전이다. 이것은 작가가 여전히 중국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중국적 가치를 독립적인 인간의 존재의 원류를 밝히려는 자의식에 투영하여 그 가치들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시도하는 면에서 중국적인 특수성을 초월하고 있고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범인을 떠안고 있다. 즉 이 작품의 모든 소재들이 중국적 특수성의 인식과 정서로 독자들을 인도하기 보다는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로 전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혹은 보편적인 인간세계의 상황·에서 자기상실과 소외를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전달하려 애쓰고 있는 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나아가 작가의 상상의 여행은 국가, 정치, 박해, 육체적 질병이라는 속세적 영역과 관련된 업보에 구속당하여 번민하는 소극적인 ‘나’가 아닌 이를 초월하여 진정한 영혼의 순수성·자연과 진리·만을 동경하여 고독한 여행을 감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나’가 주체가 되고 있다. 영혼의 원류를 찾아 여행을 하는 작가에게 세속적인 것 특하나 정치적인 것은 거대하고 영원한 자연에 떠도는 한낱 먼지처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작가를 박해하고 결국은 망명하게 했지만 정작 작가와 작품 앞에서 국가나 정치권력 같은 것들은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영혼의 산』에서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인간보다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의 자각이 자연과 진리에 대한 영원한 동경으로 전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 영혼의 여정에서 진한 고독과 영원한 것의 존재여부에 대한 끝없는 회의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의 산』을 향하는 여행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다만 끊임없이 떠나고 만나고 대화하고 듣고 보고 꿈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아쉬워하며 동경하나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것이 영혼의 원류를 탐구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요 사명이라고 작가는 글을 맺고 있다.

기적은 없다. 바로 이것이 신이 나,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한말이다. 내가 그에게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아직도 찾아야 할 뭔가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아무것도 어찌겠는가(2권, 81장: 297쪽).

중국의 지성 - 민족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진전

이 작품이 주는 의미로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루쉰으로 대표되었던 20세기 중국문학의 민족주의적 비애를 뛰어넘어 21세기 중국지성이 드디어 세계적 보편주의와 인도주의의 문을 노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초반이래로 중국문학은 루쉰을 필두로 하여 사회적 계몽과 구국, 공산화 이래로는 사회주의이념과 계급투쟁이 큰 역할을 하였다. 루쉰의 문학세계는 중국의 반식민지적인 시대의 음영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서의 고독과 비애는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중국전통의 갑옷이 열강들 앞에서 완전히 벗겨져져 알몸을 드러낸 채로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울분과 지식인으로서의 처절한 자기성찰에서 나왔다. 식민지적 상황에 처한 지식인으로서 자신·조국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비애는 결국 그의 언어에서 계몽과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어운을 떨치지 못하게 하였다.

루쉰은 지적으로 대단히 반전통적이나 정서적으로는 전통적인 인물이다. 그는 1918년경부터 『新青年』 잡지에 단편 소설인 『狂人日記』 등을 발표하여 봉건적 도덕과 문학을 비판하였다. 전통적 가부장적질서의 사회에서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면서 군주를 위한 살신(殺身)의 희생을 미화하고 가정에서는 부인과 첩들과 자식들의 아버지를 위한 헌신적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보는 유교적 도덕의 비인간성을 ‘식인(食人)문화’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큐정전』(阿Q正傳)에서는 이러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

고 개혁할 능력도 없는 중국 국민성의 비루함과 공허한 지적 자존심을 일종의 봉건적인 ‘정신승리법’이라고 통렬하게 공격하였다(Feng Xuefeng, 1985: 17-18). 결국 그의 반전통은 유교사상을 거부하기에까지 이른다.

대표작인 『아큐정전』에 나타난 그의 사회비평과 기질은 대단히 비판주의적이다. 그러면서도 중국 지식인의 역사적 사명 — 계몽과 구국 — 을 가장 강렬하게 평생에 걸쳐서 추구하였다. 그의 반전통주의적 태도에는 중국의 봉건성에 대한 무한한 비판주의가 스며있으나 그는 평생 그것의 타파를 위해 처절한 지적인 투쟁을 쉬지 않고 벌였다. 그런 의미에서 루쉰은 가장 반전통주의자이면서도 중국적 지식인의 전통을 가장 희생적으로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삶을 살았다. 루쉰은 그의 문학작품과 유명한 잡문(수필)에서 자신의 고독과 비애를 사회적, 역사적인 내용으로 표현하여 가장 먼저 현대적 자의식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현존하는 중국최대의 철학자인 리쩌허우(李澤厚, 1989: 136-137)의 표현을 빌린다면 “루쉰의 고독과 비애는 일종의 철학을 초월하는 풍취”를 가지고 있으며 “계몽가이면서도 계몽을 초월한 인물”이었다. 그와 동시대의 계몽적 지식인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대만과 중국본토에 걸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으며 작품들이 읽히고 있고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은 쑨원(孫文)과 함께 루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개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볼 때 중국의 지식인으로서의 사상과 정신적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였다고 평가 된다. 그는 동시대의 선구자적 지식인이었던 천두시우(陳獨秀)처럼 현실적 정치참여와 후스(胡適)처럼 서구식의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 그가 ‘좌익작가연맹’의 창설을 막후에서 주도하기도 하고 저우양(周揚)의 ‘국방문학론’에 맞서 ‘인민문학론’을 주창하였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라고 단순히 정의 내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³ 그의 친사회주의적 태도에는 국민당에

3. 1936년 중국공산당은 일본의 침략에 거국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좌우의 경과를 초월한 모든 문인들을 결집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구호를 “국방문학”으로 대체하였다. 일종의 문화계에서의 “통일전선 전술”인 것이다. 그러나 루쉰 등은 비사회주의 지식인과의 연대는 혁명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반박하면서 더욱 좌익적인 “인민문학”의 구호로서 “국방문학”노선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논쟁에

대한 실망, 항일구국투쟁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진통, 반봉건적 사상으로 인한 당시의 주어진 현실에서의 상대적인 편향에 불과하였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좌익작가들의 프롤레타리아혁명문학운동을 비꼬았다. 즉 현실은 모르고 이론적인 프롤레타리아라고 비판하였다. 정치와 공산당에 부속된 작가와 지식인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평생 현실정치참여와는 거리를 유지하며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시대와 상황은 다르나 루쉰과 가오싱젠의 문학정신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들이 어느 때나 작가의 독자성과 자유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까지 살아있는 루쉰의 정신적 유산이라면 그가 쓴 봉건성의 극복과 민족의 계몽을 위한 작품과 더불어 정치와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표현과 지적 자주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유주의정신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고뇌에 찬 치열했던 삶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루쉰이 오래 살았다면 공산당의 문화정책과 가장 대치되는 작가가 되었을 것이다. 사회주의중국에서 루쉰의 영향을 받아 표현의 독자성과 지적인 자주성을 주장했던 지식인과 작가들이 공산당의 ‘반우파투쟁’, ‘문예투쟁’의 목표로 되고 박해 당했다는 실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⁴ 이러한 루쉰의 외침이 가오싱젠의 작품에 이어져 개인의 존재와 끊임없는 자유에의 갈망으로 개화하였다고도 보인다.

종합적으로 가오싱젠의 『영혼의 산』은 루쉰의 비애와 계몽, 민족주의적 고뇌와는 다른 문학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루쉰의 시대에서는 주관상실이 문학인식의 울타리를 규정하였다면 21세기에는 자아상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음을 가오싱젠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루쉰

대해서는 Hsia(1968: 101-145), Tagore(1967: 167-179)를 참조.

4. 20세기 초반의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자주성보다도 중국사회의 계몽과 주권회복을 위한 구국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공산당의 집권 이후에는 “延安講話”(1942년)에서 毛澤東이 친명한 대로 문학과 예술은 사회주의혁명과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존재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정치에 대한 예측은 鄧小平의 개혁정책이래로 많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공산당의 문화정책은 국가에의 복종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의 계몽과 구국의 기질이 그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니다. 또한 독재국가의 문학에서 흔히 보이는 이념과 정치적인 비판주의와 한 풀이 형태의 문학의 기질을 초탈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시기에 박해 받았던 작가에게 있어서 정작 정치는 부수적이고 보편적 인간사에 있어서의 찰나적 이거나 순간의 과만에 불과하다. 이념과 정치적인 세속성을 인간영혼의 보편성과 영원성안에 매몰시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사회의 이해관계와 인위적인 것들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의 메시지를 던지고도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작품이 추구하는 메시지는 순수한 인간영혼의 발견을 향한 탐구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만이 아닌 모든 인간의 꿈이자 향수이며 동경의 대상이다. 결국 『영혼의 산』은 중국문학의 지평을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세계의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주의로 가는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오싱젠. 2001. 이상해 (역). 『영혼의 산』. 서울: 현대문학북스.
 李澤厚. 1989. 『中國現代思想史論』. 臺北: 風雲時代出版社.
 Feng Xuefeng. 1985. "Lu Xun: His Life and Works." in Yang Xianyi and Gladys Yang (Trans.). *Lu Xun: Selected Works*.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Vol. 2. pp. 17-18.
 Hsia, Tsi-An. 1968. *The Gate of Darkness; Studies on the Leftist Literary Movement in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Tagore, Amitendranath. 1967. *Literary Debates in Modern China: 1918-1937*. Tokyo: The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nobel/list/KO1p0000.html>(검색일: 2005. 02. 16).